

초기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에 자기분화, 부부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

박희정**

서울벤처 대학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초기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에 자기분화, 부부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부부갈등대처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요구도 조사를 위한 포커스 인터뷰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사는 부부이고 나이는 30세 이상에서 62세 미만을 선정하였으며, 재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의 실질적 경험이 있는 부부를 선정하였으며, 부부 한쪽이라도 배우자가 전혼관계를 통해 자녀가 있는 복합가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회기에 100분씩 총 2회기로 개별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재혼부부들은 원가족에서 형성된 미분화로 역기능적인 습관들이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부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상황에서 낮은 자아분화 수준으로 표현하며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낮은 자기분화수준은 갈등관계에서 자신을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환경에 흡수되는 부정적 갈등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혼부부에게 가장 취약한 면이 부부간 친밀감이며 유대관계이다. 전혼에서 상처와 부정적 정서로 인해 부부 신뢰감이 취약하였다. 비교적 짧은 재혼기간의 영향과 여러 갈등 요소인 경제적 갈등, 계부모-친부모의 갈등, 계부모-계자녀의 갈등, 전 배우자와의 갈등, 부부간 잠재적 갈등 등으로 인해 친근한 부부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혼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남아 있을 경우 현재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갈등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로 인한 부부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를 돕는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재혼은 증가하여 부부 및 가족 구성원인 또 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초기재혼부부의 재혼 유지,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

1. 서론

재혼가족이 가장 보편적인 미국에서도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 이혼율보다 더 높다는 통계로 나타났다. 초혼의 이혼율이 40%인데 비해 재혼의 이혼율은 70%에 이르고, 세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는 90%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원제, 2002;김연옥, 2004). 또한 한국 사회에서 특징적인 가족의 변화 중 초혼 연령의 증가와 혼인 형태의 다양화 중 재혼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재혼은 혼인의 한 종류로 자리 잡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혼의 해체율이 초혼 보다 더 빠르게 진행 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고 재혼에 심각성과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재혼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통계청 자료, 2016).

본 연구는 재혼의 가족체계 중 부부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성을 주며 재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을 올리고 부부가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며 갈등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부 갈등대처방식을 향상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재혼부부의 경우에는 이혼과 사별을 통한 상실에 대한

* 9252279@hanmail.net

** ecoecop@daum.net

경험도 크며, 재혼의 동기 또한 경제적 안정, 자녀양육 부담,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도피,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 등과 같은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불안정한 제도로 불리는 재혼은 새로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이전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을 직면한다.

해외 연구에서도 재혼 가정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Gosselin & David, 2007). 카터와 맥골드릭(Carter & Mc Goldrick, 1999)에 의하면 재혼은 가장 어려운 전환기로 재혼가족이 적절하게 통합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가족관계의 상실을 애도하고 새로운 가족의 전통이 구축되어야 하며, 같이 생활하지 않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유대가 재협상되어, 자녀가 갈등 없이 두 가구에서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박희정, 2017).

부부는 자신과 비슷한 문화수준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다(Bowen, 1976).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부부간의 존중과 배려가 높으며, 부부의 상호존중이 높을수록 갈등대처능력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갈등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부부가 결혼생활 초기에 있어 안정감은 결혼생활 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갈등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게 해 주고, 불안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바탕이 된다. 이와 같이 재혼부부가 자기문화수준을 높여 부 상호 신뢰감을 높이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부갈등 대처방식을 향상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혼에 대한 선행연구는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갈등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연구와 재혼가족의 가족기능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재혼부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혼부부 재혼유지를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재혼기간이 1년부터 6년 미만인 재혼초기 부부, 30세 이상에서 62세 미만의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재혼부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포커스 집중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프로그램 개발 성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2.1. 초기재혼 부부의 재혼유지

재혼은 사별이나 이혼 후 다시 하는 혼인을 뜻하는 것으로, 부부 중 한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결혼한 경력이 있고,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하고, 전혼관계 안에서 자녀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자녀와 함께 동반한 복합가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재혼은 로맨틱한 동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동반한다. 배우자의 전혼경력을 통한 전배우자와의 관계, 계자녀의 존재라는 재혼의 특성이 기인한다.

재혼부부는 전혼의 해체로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좌절감 및 우울 등과 같은 심한 정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과 사별을 거치면서 상실과 상처로 인한 가족 해체 경험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위험이 높고, 안정성이 취약하여 가족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혼기간이 짧은 초기재혼부부에게는 재혼에서 또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는 불안과 재혼에 대한 즉각적인 환타지로 인해 갈등이 있다. 또한 배우자 선택 시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배우자를 비교적 짧은 만남으로 즉각적 선택을 때문에 초혼부부에 비해 서로에 대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문제해결 기술도 서투르다.

또한 초기재혼부부가 재혼을 해체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를 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배우자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하여 좌절을 빨리 경험하여 또 다시 재이혼이라는 해체를 선택하기도 한다. 재혼부부에게 있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길게 두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자기분화

보웬(Bowen, 1978)의 핵심개념으로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지적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 가를 나타낸다.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라고 자기분화를 설명하였다. ‘분화’는 개인적 성취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능력, 그리고 정서체계와 사고체계를 구분할 수 있는 심리 내적 능력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M. Kerr, 1978).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의 조화를 통해 사고와 감정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객관적 사고기능을 하고,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며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박희

정,2017; 재인용).

반면 자기분화수준이 낮으면 정서적 체계로부터 지적체계의 분화가 어려워 부부간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에 직면하여 폭력 등 부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 결혼관계에 어려움이 있다(M. Bowen, 1978).

원가족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했을 때 불안과 갈등의 상호작용 패턴을 가지게 된다(김판기,2011). 부부가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되어 있을 경우, 현재부부의 기능에서 적응되지 못하고 개별성과 독립성이 발달되지 못한다. 재혼부부는 무엇보다도 역동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고 독립성과 개별성을 가지며 타인과 친밀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3.3. 부부갈등대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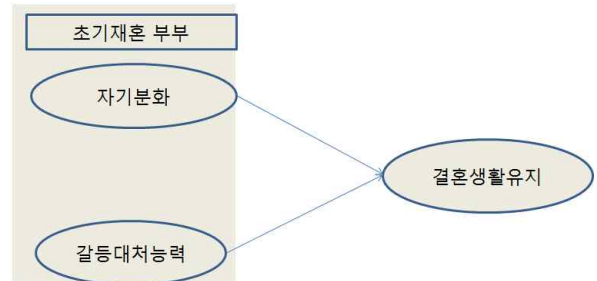
재혼 부부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해결방식 및 의사소통 익히는 것이 요구된다. 보웬(Bowen, 1978)의 이론에 따르면 부부가 자신의 원가족에서 개별화되지 않고 미분화된 자아를 가졌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와의 삼각화를 통해 부부의 미분화에서 오는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시켜 자녀가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재혼부부는 친자녀와 형성된 관계가 부부보다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가족체계 안에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친자녀와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안창현·김진이, 2008).

부부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부부가 자신이 자라온 원가족 체계로부터 분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우리 나라 부부들은 대체로 성격차이,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많이 느낀다(최규련, 1994), 재혼부부들에게 있어 갈등요소는 초혼부부 보다 다양하게 많다. 계자녀 문제, 전혼자와의 미해결 된 문제, 경제문제, 친가 및 인척관계, 새배우자와의 권력과 평등에 관한 문제, 가사문제 성역할 문제 등이 배우자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경으로부터 재혼부부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 된다(조지용·박태영, 2011)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를 위한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1.1. 연구가설

위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 가설1: 초기재혼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초기재혼부부의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초기재혼부부의 부부갈등대처방식인 결혼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대상자

3.2.1. 연구대상자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에 관한 재혼부부의 심층 인터뷰

재혼부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자기분화수준과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을 관찰하였다.

3.2.2. 심층면접조사 및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질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혼한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재혼부부로, 30세 이상부터 62세 미만의 부부이다. 재혼가족 구성(즉 배우자 한 쪽의 전혼경험과 자녀가 있는 부부, 두 배우자 모두 전혼경험과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은 복합가정, 혼합가정 모두를 포함하였다.

3.2.3. 연구대상자 심층 인터뷰

심층인터뷰는 재혼가족의 특성상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질문, 재혼부부가 결혼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 대한 태도와 생활 등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00모임의 재혼부부 4쌍과, 지인의 소개를 받은 개별 인터뷰 4쌍에 대해 2017년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참여자들에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적 형태의 질문지를 통한 면접이었고, 면접 횟수는 총 2번에 걸쳐 실시하였고, 매회기마다 면접시간은 100분씩 소요되었다.

3.3 질적 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재혼부부 총 8쌍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가족적 특성 자료에 대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가족적 특성

구분	나이	부부	직업	전혼 해제 사유	재혼 기간	학력	자녀	혼인 형태	동거 여부
1	61	남편	관리직	사별	민3년	대졸	딸2 아들1	사실혼	비동거
	61	아내	전업 주부	이혼	민3년	대졸	딸1 아들1		비동거
2	48	남편	전문기술 직	이혼	민3년	대졸	딸1	법률혼	비동거
	50	아내	미용업	이혼	민3년	대졸	딸1		
3	57	남편	전문직	이혼	민4년	대졸	아들1	사실혼	비동거
	58	아내	서비스업	이혼	민4년	고졸	딸1		동거
4	58	남편	금융업	사별	민2년	대졸	아들2 딸2	사실혼	비동거 동거
	51	아내	전문기술 직	이혼	민2년	전문 대졸	딸1		비동거
5	50	남편	개인사업	이혼	민4년	전문 대졸	아들1 딸1	법률혼	비동거
	52	아내	보험업	이혼	민4년	대졸	딸2		동거
6	50	남편	건축업	이혼	민5년	고졸	자녀 없음	사실혼	비동거
	48	아내	학습지 교사	이혼	민5년	전문 대졸	아들2		
7	45	남편	회사원	사별	민3년	고졸	아들1	법률혼	동거
	44	아내	판매업	이혼	민3년	중졸	아들1		동거
8	52	남편	공무원	이혼	민4년	전문 대졸	아들1 딸1	법률혼	동거
	46	아내	개인 사업	이혼	민4년	전문 대졸	아들1		비동거

3.3.1. 심층면접

3.3.1.1. 자기분화

개인의 자기분화 정도는 정서적 기능과 지적기능 사이에 융합이나 분화의 정도를 뜻하며, 두 개의 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융합된 상태의 사람은 정서적 반사행동(Emotional Reaction)을 하기 쉽고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에도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M. Bowen, 1978). 남편2, 남편 4, 남편 8은 원가족과 분리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에서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할 때 욕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분화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자기분화에 대한 심층면접사례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신과 원 가족을 구분하지 못하고 융합된 채 쉽고 낮은 스트레스에도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편1)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지자 밤늦게 어머니와 의논하는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었지요. 그 이후인가 나는 말썽을 피우면 안 돼고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또 조금만 일이 생기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부터 앞서요.

아내1) 전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주눅 들어 살았어요. 심지어는 임신해 있는 저를 발로 차고 툭하면 내가 번 돈이니 쓰지 마라. 내가 번 돈으로 그렇게 낭비한다고 구박을 했어요.

남편2)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잘 못 했다고 맞고, 잘 못 했다고 하면 뭘 잘 못 했냐고 맞고, 아버지에게 맞은 기억 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했어요.

남편4)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 부부에게 눈치 보며 살았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참고서가 있으면 공부를 더 잘 할 것 같아 참고서를 사달라고 했더니, 형님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며 그 속에 답이 있으니 책이나 열심히 읽으라고 했어요. 지금도 책에 대한 서러움이 있어요.

아내4) 저는 외모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못 생겼다고 못난이라고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도 너는 누구 닮았니? 누구 닮아서 그렇게 통통하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요.

남편8) 저는 자기 힘을 가지고 함부로 폭력을 쓰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툭하면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누군가 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아내8) 저도 남편과 비슷한 생각을 해요. 어른들로 인해 애들이 상처 받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해요. 저 또한 아버지의 잘못으로 엄마와 헤어지고 새엄마와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그런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3.3.1.2. 부부갈등대처방식 사례

재혼부부의 경우 초혼보다 많은 갈등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계 자녀 문제, 경제문제, 부부문제, 문화적 이질감, 세대차이 등의 갈등 요소가 있다. 재혼부부의 갈등은 전혼관계에서 경험한 전배우자와의 비교되는 행동, 갈등대처방식, 갈등상황과 연결되어 재혼부부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부부 3은 남편의 소통과 아내의 소통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 누적되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되었다. 이제는 갈등이 고조 되어 더 이상 부부들은 배우자의 이야기를 서로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부부 4는 친자녀-계자녀의 갈등과, 전배우자의 비교에 대한 갈등이 있으나 단절과 비난, 경멸의 대화를 사용하고 있다.

부부 7은 남편이 아내에게 성역할의 충실, 가사역할의 충실을 기대하고 있으나 충족하지 못한 부정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아내는 불안에 사로잡혀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부부갈등대처방식 심층면접사례를 종합하면 재혼부부 모두 전혼에 대한 상처와 불안으로 인하여 부부갈등이 발생되면 관계의 유지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비난, 공격, 회피, 경멸 등의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3) 제가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도 집이고 집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내 3) 이제는 남편의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왜 좋은 얘기도 아닌데 매일 들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특히 누구 비난하는 얘기, 정치 얘기, 이제는 나하고 연관 없는 얘기는 듣기 싫어요.

남편4) 애들 엄마는 주방을 깨끗하게 하고 살았어요. 깔끔했어요. 청소를 너무 해서 탈이 날 정도였죠. 그리고 나를 끄적하게 위해주었어요. 애들 엄마는 나에게 저사람 처럼 말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내4) 저도 남편 전부인 처럼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였다면 집 깨끗하게 치우고 가꾸면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직장도 다니죠. 늦게 와서 집안일 다 하죠.

남편7) 아내는 천성이 게을러요. 제가 뭐라고 하면 몇 번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요. 뭐든지 억지로 해요. 저는 애들에게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주말이면 가족이랑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면 좋을 텐데 그것도 싫다고 해요. 이제는 지쳤어요. 제가 말을 안 해요.

아내7) 남편이 처음엔 잘 했어요. 남편에게 고마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좋은 말만 했어요. 지금은

말도 안하니깐 제가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남편이 그만 살자고 해서 제가 불안해요.

IV. 결론

본 연구는 초기재혼부부의 재혼유지를 위한 자기분화, 부부갈등대처방식이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초기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를 강화 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다.

자기분화의 경우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에도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편4, 남편 8은 원가족과 분리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할 때 욕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분화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은 자신과 원 가족의 미해결된 과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융합된 채, 낮은 스트레스에도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갈등대처방식에서는 전배우자와의 비교, 계자녀와의 관계, 경제문제, 배우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부부 갈등이 나타났고, 갈등대처방식은 남편들의 경우, 단절, 비난, 회피, 공격, 언어폭력 등을 사용하였고, 아내는 경멸, 회피, 방어, 언어폭력 등을 사용하였다.

재혼의 경우 재혼의 기간이 재혼부부에게는 많은 역동의 차이를 말해준다. 페이퍼나우(P. Papernow, 1984)의 재혼가족 발달단계에 근거하면 1년부터 3년간 재혼초기 단계인 환상기와 혼돈기, 자각기를 거치고, 중기인 5년의 기간이 지나야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재혼초기에 재혼부부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들의 불안을 줄이는 부부에게 결혼을 유지 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차원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 요구된다.

재혼한 부부의 재혼의 경우 60%, 삼혼의 경우 70%가 결혼 5년 안에 재이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김효순, 2015)

질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62세의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재혼부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편중되어 있다. 연구대상자들인 재혼부부는 고졸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며, 만남에서 재혼기간은 5년 이하이었으며 재혼유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실제적인 정보는 미비하였다. 그리고 도시 거주자들

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재혼부부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재혼기간 1년 부터 6년 이하 30대 이상 65세 미만의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혼부부의 자기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재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재혼기간 10년 이상의 50대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통계청(2016). 2016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강희남(2013). 재혼이야기, 서울, 키메이커.
 강희남(2016). 재혼 할 때 알아야 할 365가지, 서울, 키메이커
 권혁출(2014). 재혼 모가 경험하는 재혼가족 갈등 극복에 대한 현상 연구, *배석대학교 박사논문*.
 김미옥(2014). 재혼가족의 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관기(2011). 보웬의 가족치료와 말러의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가족관계 중심적 목회상담,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효순·하춘광(2011).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새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학회지*, 23(1), 137-168.
 김종숙(2003). 재혼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박봉순·김영희(2010).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자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9), 1-11.
 박수진·이인수(2015).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2), 381-400.
 박희정(2017).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박형원(2015). 기혼 성인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영향요인: 원가족 경험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184-194.
 변상해(2012). 꽃보다 아름다운 부부상담, 경기, 한국청소년보호재단.
 신현정(2017). 부부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혜정·조은경(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15(1), 19-46.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In P. J. Guerin(Eds.),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Bowen, M.(1978).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Brown, J. H., & Brown, C. S.(2002). Marital therapy: Concepts and skills for effective practice. New York; Brooks/Cole.
 Carter, E., & McGoldrick, M.(1999). eds. The expanded family life cycle, 3rd ed. Boston: Alyn and Bacon.
 Ganong, L., H., & Coleman, M.(1989). Preparing for Remarriage: Anticipating the Issues, *Seeking Solutions. Family Relations*, 38(1), 28-33.
 Gosselin, J.(2010).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Stepmother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51(2), 108-123.
 Kerr, M. E.(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Ph.D. Dissertation, School of professional of psychology.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Papernow, P. L.(1984). The Stepfamily Cycle: An Experiential Model of Stepfamily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3(3), 355-363.
 Spanier, G., & Furstenberg, F.(1987). Remarriage and reconstituted families, In M. B. Sussman and S.D. Steinmetz(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 419-432) NY: Plenum.
 Synder D, K.(1979). Multimensiona assesment of martial sati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Visher, E. B., Visher, J. S., & Pasley, K.(2003). Remarriage families & stepparenting: Walsh, F.(2003). Normal family process: Growing diversity & complexity, 3rdEd. The Guilford Press.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